달라이라마 생일 기념행사 불허

네팔정부 통보, 배후로 중국의 압박 제기돼

박영빈 객원기자

14대 달라이라마의 생일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봉행됐지만 정작 네팔에서의 기념행사가 정부의 불허로 봉행되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중국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7월 8일 '로이터 통신' 'AFP통신' '티베탄리뷰' 등의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14대 달라이라마의 84세 생일(7월 6일)일 맞아, 전 세계의 망명 티베트인들과 티베트 불교도들이 일제히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국내에서는 티베트 하우스 코리아(서울)과 티베트 불교사원 광성사(부산) 등 티베트 불교단체 등이 기념법회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점유 하에 있는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비공식적인 기념법회가 곳곳에서 봉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인도 다음으로 많은 망명 티베트인들이 거주하는 네팔에서의 기념행사는 네팔 정부의 불허로 중지됐다. 네팔에는 약 2만 명의 망명 티베트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정부는 불교성지로 유명한 보우더나트 대탑과 카트만두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달라이라마 생일기념 행사를 모두 불허하면서 "보안과 안전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달라이라마의 생일을 기념하는 공공행사는 허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카트만두지구 행정보좌관인 크리쉬나 바하두르 카트왈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진 모르지만 부적절한 활동이나 분신자살의 가능성이 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명을 요구받은 카트만두시의 행사개최 담당부서는 "우리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자세히 알 수 없다. 단지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티베트 자치구 비롯해 국내 등
7월 6일 곳곳 기념식 열렸지만
불교성지 카트만두 등 네팔은
'시민안전' 이유로 일방적 불허

네팔 內 중국영향 점차 거세져
反티베트, 親중국 성향 드러나



달라이라마의 생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위해 모인 티베트인들을 네팔경찰이 막는 모습. 사진출처=티베탄리뷰

익명을 요구한 네팔 외무부 관계자는 "주네팔 중국대사관 측에서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기념행사를 불허할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네팔 내무부까지 전달됐다"며 배후의 중국의 압박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몇몇 영미권 외교관들은 "이러한 조치는 망명 티베트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네팔 공산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된 2008년 이후부터 네팔 내의 달라이라마 관련 행사들이 다수 중지된 바 있다. 2017년 5월엔 네팔정부가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제권 구상계획인 일대일로 계획에 네팔이 합의하면서 네팔 내에서 반티베트, 친 중국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티베트인의 네팔 입국을 불허하거나, 달라이라마에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들을 시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생일을 맞은 달라이라마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친구 분들이 생일축하의 뜻을 전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살든지 3가지를 기억해 달라. 자비심을 가지고, 종교적으로도 화합하며, 인도의 날란다에서 전해오는 논리의 전통을 널리 말해주시길 바란다. 이것이 나에겐 최고의 생일선물"이라고 밝혔다.

150년 만의 귀향, 돌아온 청동 등롱

日 혼란기 유출 추정, 3년 전 우연히 발견

일본의 한 사찰에서 150년 전 행방불명된 청동 등롱(燈籠)이 돌아와 다시 불전을 밝히게 됐다. 7월 12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 '시즈오카 신문' 등은 다시 돌아온 등롱의 미담을 보도했다.

약 150년 전, 일본의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동안 당연시됐던 '신불습합(神佛習合)'을 정책적으로 분리했다. 이에 일본 전국적으로 불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 졌고, 많은 사찰들이 폐사되거나 성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해외 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일본의 국보급 불상들은 대부분 이때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반환된 한 쌍의 청동등롱은 높이 70㎝, 투각으로 만들어진 몸체에 여의주 장식의 지붕을 얹고 있으며, 크게 훼손된 부분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등롱을 발견한 시바타 코스케 씨는 "3년 전 집을 이사하면서 다락방에서 등롱을 발견했다"며 "등롱이 어떻게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지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등롱을 자신의 재적사찰인 타이조인(泰藏院) 기증했으나 등롱의 받침대에 남아있는 명문으로 원래의 소재지가 밝혀졌다.

등롱의 원 소재지는 나라현 도츠카와무라(十津川村)에 소재했던 사찰 코묘지(光明寺). 등롱의 명문엔 코묘지의 신도들이 1845년에 공양 올렸다는 명문이 남아있다. 도츠카와무라에는 원래 54곳의 사찰이 소재했으나 폐불훼석으로 모두 폐사, 철거됐다. 코묘지도 이때 철거됐으나 불상들은 화를 면해 해당 지역의 작은 불당에 아직까지 모셔져 있다.

시바타 씨는 우연히 코묘지의 불상들이 아직까지 모셔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찰측과 협의 끝에 등롱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11일 타이조인에서 열린 반환식에서 시바타 씨는 "원래의 장소에서 먼 북쪽까지 등롱이 흘러 온 것은 폐불훼석의 영향이 틀림없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반환 소감을 밝혔다.

등롱을 전달받은 도츠카와무라 종대표 오나카 오사무 씨는 "사라진 줄 알았던 등을 무사히 돌려받아 꿈만 같다. 따뜻한 마음에 마을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등이 켜진 것 같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가사 변신은 무죄 '플라스틱 재활용'

태국 스님들, 불교 환경 몸소 실천 사회적 '귀감'

지구 환경에 지대한 위협을 끼치는 일회용 플라스틱병. 이러한 플라스틱병을 가지고 가사(袈裟)를 지어 입는 태국의 스님들이 있다.

불교 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 7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방콕의 방 카차오(Bang Kachao) 섬에 위치한 왓 착 다엉(Wat Chak Daeng) 사원 스님들은 불교의 환경 의식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 가사'를 입는다.

글로벌부디스트도어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은 태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육지와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제적 문제다. 플라스틱은 차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환경 폐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태국 스님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왓 착 다엉(Wat Chak Daeng) 사원 스님들은 불교의 환경 의식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 가사'를 입는다.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스님들은 버려진 플라스틱병을 주워 모아 이를 압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가공공장으로 보내 옷감형태로 녹인다. 천으로 제작된 후에는 스님들 손에 다시 돌아와 마침내 가사로 제작된다. 현재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200여 벌의 가사를 제작했다고 한다.

해당 사원 소속의 티파콘(Thipakorn) 스님은 "걸치는 옷에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없다. 나 자신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사를 입고 있고, 이것은 전통 불교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가사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30~35% 플라스틱과 면 등이 필요하다. 1.5L 플라스틱 페트병 약 30개가 필요한 셈이다.

이는 플라스틱병을 옷감 형태로 변화시키는 친환경 프로젝트다. 지역사회협회가 총괄하며 태국 내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스님들은 가사뿐만 아니라 사원에 필요한 가구도 플라스틱병의 병뚜껑 등을 재활용해 만들고 있다.

한편 글로벌부디스트도어는 "태국은 중국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베트남 · 스리랑카에 이어 연간 103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 중 3% 이상이 바다로 유입된다"는 니케이 아시안뷰 보도를 인용했다. 또 2017년 태국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8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데, 종합하면 연간 약 200억 개가 배출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건축전문잡지 디자인붐에 소개된 일본 후슈인 사원의 건축 디자인. 사진출처=디자인붐

日 사원 디자인 '보리수나무 연상'

후슈인 사원, 현대적 감각에 건축잡지도 호평

일본 도쿄 외곽 도시에 위치한 한 관음사원이 건축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사원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 때문이다. 건축 전문잡지 디자인붐(Designboom)은 7월 12일 후슈인 사원(houshouin temple)을 소개하며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린 일본 불교 사원이 현대적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사원은 관음상과 불단의 모습은 고스란히 유지하되 천고, 입구, 홀 등은 완전히 탈바꿈했다. 현대인들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킨 것. 특히 전통 사원처럼 기둥이 건축물의 중간중간 배치되지 않고, 높은 천고를 받치는 형태로 건축됐다. 이러한 지붕 형태가 마치 "부처님이 수행하던 보리수 나무 아래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게 디자인붐의 설명이다.

디자인붐은 "해당 사원은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원 건축 양식에 새 바람을 불어올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